

국어

4월 모의 문학작품 해설, 분석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라 최초 제작일부터 5년간 보호됩니다.  
본 콘텐츠의 무단 배포 시,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본문해설

[겨울이 되어] 바람이 소슬하야[으스스하고 쓸쓸하여] 나뭇잎이 다 진 후의 계산(溪山)[시내와 산, 지리산의 지명]이 삭막거늘[적막하거늘]

겨울이 조화[신통한 재간] 부러 백설(白雪)을 누리오니

겨울이 조화를 부러 흰 눈이 내리니

수많은 산봉우리 골짜기가 경요굴[아름다운 구슬로 된 굴, 은유]이 되었거늘

눈썹을 찡그리며 어깨를 으쓱하고 눈을 노피 드니

가없는 설경(雪景)[끝없는 눈 내린 경치]은 다 시(詩)의 제재가 되여시니[시의 소재]

우활(迂闊)\*흔 정신(精神)이 추위를 어이 알소

자연을 감상하며 시를 짓는 어리석은 마음에 추위를 모르겠다.

사계절의 모습이 가는 듯 도라오니[자연의 순환]

아름다운 경치에 흥취도 꺾지세고 [흥취도 갖고 있구나, 나는구나]

맑은 물 귀 씻으니 허유\*를 내 부러워하라

낙숫대 드리우니 칠리탄\*과 엇더하고

이원의 반곡\*이 이러던가 엇더하며

허유, 칠리탄, 이원 모두 속세를 등지고 자연을 즐긴 중국의 성인이다. 허유는 자연에서 속세의 더러움을 씻으러 귀를 씻었고 칠리탄은 낙수를 즐겼다. 그래서 화자 자신도 그들과 비교하여 자연 속의 삶을 자랑하고 있다.

무이산의 청계는 이에서 더 요흔가

무이산의 푸른 시내는 여기보다 (이 지리산의 경치보다) 더 좋은가?

화산(華山)의 한 부분은 나누자 흐거니와

이 별천지[특별히 경치가 좋거나 분위기가 좋은 곳]는 나밖에 뉘 아논고

< 중략 >

산조산화(山鳥山花)를 내 버즐 삼아 두고

경치를 만끽하며 삼긴 대로[생긴 대로] 노논[자연을 즐기는] 몸이

공명(功名)[벼슬, 속세의 가치-부정적]을 생각하며 빈천(貧賤)[가난함과 천함]을 설워홀가

산 속에서 새와 꽃을 친구로 두고(물아일체)

경치를 즐기며 생긴 대로(나의 분수대로, 자신의 분수는 높은 벼슬을 할 것이 아니고 소박하게 자연 속에서 삶을 즐기며 살도록 삼겼다는-태어났다는 뜻이다)

자연을 즐기며 사는 내가

높은 벼슬을 부러워하며 자연 속에서 가난하고 천하게 사는 것을 서러워 하겠는가?

단사표음(簞食瓢飮)[소박한 삶, =단표누항=박주산채=안빈낙도=안분지족=빈이무원]을 내 분수로 여기니 일월(日月)[세월]도 한가홀사

이 계산(溪山) 경물(景物)[경치]을 슬토록[실컷] 거느리고

백 년 세월을 노닐다가 마치리라

아이야[시중 드는 아이, 당시 시가 작품에서 자주 쓰이던 표현] 사립문 달아라 세상[속세] 알까 흐노라

속세와의 단절

\*우활: 사리에 어둡고 세상 물정을 잘 모름.

\*허유: 중국 요임금 때 은사(隱士).

\*칠리탄: 중국 후한 때 엄광이 몸을 숨긴 동강의 여울.

\*반곡: 중국 당나라 때 이원이 은거한 곳.

- 정훈, 「용추유영가」 -

## ■ 이해와 감상

조선 중기 때에 지은 정훈(鄭勳)의 가사. 작자가 살던 방장산(方丈山 : 지금의 지리산) 아래 용추동(龍湫洞) 일대의 뛰어난 경관을 읊은 작품이다.

조선시대의 가사 중에는 서경류의 작품이 많으나 <용추유영가> 지리산을 소재로 지은 초기작품에 속한다. 전 120구에 9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내용은 제1단은 용추동과 지은이, 제2단은 용추동일대의 승경(勝景)을 읊었고, 제3~6단은 각각 용추동의 춘·하·추·동의 경치를, 제7단은 중국의 명승지에 비교하여 본 용추동일대의 승경을, 제8단은 용추동 승경 속에서의 한유(閑遊), 제9단은 속세단절과 승경에의 몰입으로 되어 있다.

내용 중 한 구절인 "수간모옥(數間茅屋)을/운수간(雲水間)에 얼거매고/서창을 비겨안자/양안(兩眼)을 흐보내니/원근 창만은/취병풍이 되었거/고저 석벽은/그림엿거시로다."에서 볼 수 있듯이 시상의 전개가 활달하고 시어구사가 다채롭다. 또한, 다양한 소재 선택과 구조의 치밀성 등 저자의 시 수준을 입증하여 주는 대표작이다.

정철(鄭澈) · 박인로(朴仁老) 등의 작품과 더불어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서경가사라 할 수 있다.

출처 [용추유영가](#) [龍湫游詠歌] (국어국문학자료사전, 1998., 한국사전연구사)

## ■ 핵심정리

- 연대 : 조선 명종 때
- 갈래 : 서정 가사, 양반 가사
- 형식 : 34조(44조), 4음보의 연속체
- 성격 : 전원적, 풍류적, 예찬적.
- 성격 : 전원적, 풍류적
- 제재 : 지리산 용추동의 사시계절의 변화에 따른 풍경과 풍류.
- 주제 : 지리산의 사계절 풍경과 풍류 예찬.
- 작가 : 조선 중기의 시인. 그의 작품들이 시어 선택이나 조사(調辭) 면에서 독창적인 면모를 보여 주고 있어 그는 섬세한 예술적 관찰력으로 자연을 관조 문학 예술로 승화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 향리에 묻혀 살면서도 임진왜란, 광해난정, 인조반정, 이괄의 난을 겪으면서 당시의 사회현실을 좌시하지 않고 대담하게 비판한 작품들은 또다른 작가적 개성을 보여 준다.

## ▣ 본문해설 1

**앞부분의 줄거리** : 중국 오대(五代) 시절 절강(浙江) 상림촌(上林村)의 명류(名流) 최문경(崔文慶)은 만년에 우왕(禹王)으로부터 세 개의 보옥(三玉)을 받는 꿈을 꾸고 일시에 세 아들을 얻으니 각각 완(琬)·진(珍)·경(璟)이라 하였다. 한편, 강진촌(康津村)의 유원경(柳元敬)이라는 이 또한 부처로부터 명주(明珠) 세 개를 얻는 꿈을 꾸고서 세 딸을 동시에 얻게 되어 자주(紫珠)·벽주(碧珠)·명주(明珠)라 하였다. 공교롭게 그들 남녀는 같은 시각에 태어났다.

삼아(三兒)[세 아이] 점점 자라 십 세에 미치매 절세한 용색[뛰어난 용모]과 선연(嬋妍)한[아름다운] 품성이 비상특이하고[범상치 않고, 재자가인형] 문견(聞見)이[견문] 통하고 민첩하여 시서백가(詩書百家)[여러 학문과 고전]에 모를 것이 없고 매양 후원[뒤뜰]에서 조약돌로 진(陣)[병법연습]을 벌이며 칼 쓰기와 말 달리기를 익히거늘 왕씨[세 아이의 어머니] 알고 가장 민망히 여겨 삼녀를 타이르며 왈,

“여자의 도(道)는[도리는] 내행(內行)을[부녀자의 행실] 닦으며 방적(紡績)을[옷감 만들기] 힘써 규중[여인이 거처하는 방] 외 나지 아니함이 마땅하거늘 너희는 어찌 외도(外道)[남자들이 하는 일]를 행하여 고인에게[여인의 도리를 가르친 옛 성인] 득죄함을 감심(勘審)[감당]코자 하는가? 우리 팔자 무상하여 너희 셋을 얻으매 비록 여자나[우리가 복이 없어 여자 아이만 낳았다. 남아선호] 어진 배필을 얻어 우리 사후를 의탁할까 하였더니[제사를 맡기려] 이제 너희 조금도 규녀[아녀자]의 행실을 생각지 아니하니 이는 사리에 맞지 않아 남들이 알게 해서 안 됨이라. 만일 네 부친이 아시면 특별히 대죄할 것이매 내 차라리 죽어 모르고자 하나니 너희 소견은 어떠하뇨?”

삼소저 이 말을 듣고 대경[크게 놀라] 사죄 왈,

“소녀 등이 어찌 부모의 은덕을 모르고 뜻을 거역하리오마는 소녀 등이 규방의 소소한 예절을 지키다가는 부모께 영화[큰 출세]를 뵈울 길이 없사온지라. 옛날에 당 태종의 누이 장원공주도 평생 무예를 배워 천하에 횡행[다니며]하여 빛난 이름이 지금 유전[전해지니]하오니 소녀 등도 이 일을 본받아 공명을[벼슬, 나라를 위한 공] 세워 부모께 현양(顯揚)코자[이름을 드날림] 하옵고 하물며 방금 천하 크게 어지러우매 소녀의 득시지추(得時之秋)\*이어늘 어찌 한갓 여도를 지키어 세월을 허비하리이꼬.”

하니 왕씨 듣기를 마치고 삼녀 의지 굳건하고 정해진 마음이 비속함[어리석음]을 보고 어이없어 다만 탄식뿐 이러니 그 후에 삼소저 또 후원에서 무예를 익힐새 유생[삼 소저의 아버지]이 다다라 보고 대경하여 궁시[화살]와 병서[병법서]를 다 불지르고 왕씨를 몹시 꾸짖으며 왈,

“여자는 그 어미 행사를 본받나니 여아의 행사를 엄하게 단속하는 일이 없음은 이 어떤 일이뇨? 일후[이후에] 다시 이런 일이 있으면 부부지간이라도 결단코 용서치 아니 하리라.”

**[중략 부분의 줄거리]** 남장을 하고 가출한 삼소저(자주, 벽주, 명주)는 최완, 최진, 최경과 형제를 맺는다. 진원 도사에게 수행을 마친 육 인(六人)은 조광윤을 찾아 섬기기로 한다. 한편, 북군이 변방을 침노하자 육 인과 조광윤은 원양성을 뺏기 위해 전투를 벌인다.

차설[이때, 사건의 전환]. 육 인이 원양성 십 리에 주둔하고 계교[계략]를 의논할 새[때] 명주 왈,

“여차여차[이러저러] 하면 어떠하뇨?”

최완이 대희[크게 기뻐하며] 왈,

“그대 말이 정히 내 뜻과 일반이라.[같다]”

하고 명일 이른 아침에 최완과 명주 각각 번복[변장을 하고]하고 원양성하에 나아가 크게 불러 왈,

“아등(我等)[우리들]이 태수께 고할 말씀이 있노라.”

하니 수성장[성을 지키는 장수] 장임이 친히 문루[성문 위의 누각]에 올라 바라본 즉 양인[두 사람]이 손에 병기 없이 황망한 낯빛으로 성하에 이르렀거늘 장임이 이르되,

“여등(汝等)[너희들]은 어떤 사람이완대 성에 들고자 하느뇨?”

양인(兩人)이 왈,

“아등은 절강[지명]에 사는 백성이러니 장군께 고할 말씀이 있으며 문을 열어 주소서.”

하거늘 장임이 그 용모 행동거지를 보고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여 즉시 영을 내려 문을 열어 들이니 양

인이 천연히 들어와 장하에서 읊고 왈,

“아등은 원래 물화[물건]를 가지고 태원성에 와 환매[바꾸어 팔아, 자신들을 상인으로 속임]하여 자생하더니[살아왔는데] 대원수[총사령관] 조광윤이 물화를 다 앗고 우리로 하여금 호풍령[지명]을 지키어 우리 만일 성공치 못하거든 인하여 죽이라 하니 우리 본래 창검과 궁시를 모르거늘 어찌 이 소임을 당하리오.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헤아림에 마지못하여 장군께 항복하고 고향에 돌아가 부모나 만나 보고자 하여 왔나니 장군은 어여빠 여겨 잔명[남은 생명]을 구하심을 바라나이다.”

하거늘 장임이 청파[말을 듣고]에 의심치 아니하고 장에 올리고 술을 내와 관대[환대, 좋게 대우]하니 부장 원견이 간(諫)[아뢰어]왈,

“양진이 상대하매[양 진영이 대치를 할 때] 천만 가지 계교로 진중 허실을 탐지하거늘 장군은 어찌 차인[이 사람] 등을 이같이 믿어 그 진위를 살피지 아니하느냐. 익히 생각하여 타일 뉘우침이 없게 하소서.”

하니 명주 읊[절하며] 왈,

“우리 전혀 장군을 부모같이 바라고 투항하였더니 이제 이렇듯 의심하매 가위 진퇴유곡이라. 차라리 장군 앞에서 죽어 낫이라도 장군을 의지하리라.”

하고 말을 마치고 허리춤으로부터 단검을 빼어 자결코자 하거늘 장임이 급히 만류 왈,

“원수[원평]의 말이 당연하거니와 그러나 그대 사정이 이 같은 즉[죽음으로 결백을 증명할 만큼 절실한 사정] 어찌 다시 의심하리오.”

하고 양인을 머물러 주육[술과 고기]으로 정성껏 대접하더니 수일이 지난 후 최유 양인이 장임더러 왈,

“우리 대장 석수신이 조빈[조광윤]의 심복이라. 일을 지체하면 후환이 되리니 삼일 후 장군이 병을 거느려 진을 여차여차 덮치면 아등이 합력 내응[안에서 협력, 모반을 하겠다]하리라.”

하고 돌아가려 하더니 장임이 응낙하고 즉시 보내니라.

차설. 양인이 본진에 돌아와 거짓으로 항복한 소유를[사연] 이르고 땅굴을 깊이 판 후 최진과 벽주는 각각 일천 군마를 거느려 대진[진영] 뒤에 매복하고, 최완은 이천 군을 거느려 북군의 의복과 깃발을 같이 하여 원양성 북문 밖에 매복하였다가 삼경 후 북병에게 패한 체하고 북문을 열라 하며 급히 들어가 수성장을 베고 나와 장임을 막으라 하고, 최경은 일천을 거느려 땅굴 좌우에 매복하고 차일 야심한[다음 날 밤이 깊은] 후 대전에서[양쪽이 대치한 전방] 불을 놓으니 화광이 충천한지라.[불길이 하늘에 가득하다. 장임을 유인하기 위한 계략] 장임이 불 일어남을 보고 최완 등의 내응이라 하여 부장 한양[장임의 부하]으로 성을 지키 오고 스스로 군사를 재촉하여 크게 고향하고 짓쳐 들어가더니 이윽고 장임의 전군이 날날이 땅굴에 빠지며 일성 대포 소리에 사면 북병이 일어나니 북군[장임의 군사]이 불의지변을 만나 사방으로 흩어지며 죽는 자 또한 부지기수라. 장임과 원평이 겨우 도망하여 원양성으로 달아나니라. 차시[이때] 최완이 본진에 불 일어남을 바라보고 원양 북문에 나아가 대호(大號)[크게 소리질러] 왈,

“우리 북한(北漢)[장임의 군사] 패군이니 빨리 문을 열라.”

하니 한양이 그 진을 살피지 못하고 문을 쾌히 열거늘 최완이 급히 군을 몰아 짓쳐 들어가니 한양이 대경하여 대적하다가 최완의 창을 맞아 죽은지라. 최완이 승세하여[이긴 기세를 몰아] 서문으로 총돌하여 나오니 장임이 자주를 맞아 십여 합을 싸울새 장임의 기운이 쇠진하여[다하여] 달아나거늘 문득 벽주 고성 왈,

“장임 적자는 단지 말라.”

하며 활을 한 번 당기어 장임의 어깨를 맞추니 장임이 몸을 번드쳐 말에서 떨어지매 최경이 달려들어 장임을 생포하여 돌아가거늘 원평이 대로하여 말을 놓아 자주로 더불어 교전하여 십여 합에 이르러는 자주 의 칼이 번듯하며 원평이 탄 말이 거꾸러지니 원평이 말에서 내려 할 일 없어 항복하는지라.

## ▣ 핵심 정리

■ 주제 : 세 자매와 세 형제의 영웅적 삶

■ 특징

- 주로 대화와 행동을 통해 극적 제시 방법으로 사건을 전개
- 독자가 아는 사실을 주요 인물들이 모르게 하여, 사건에 대한 독자의 흥미를 유발

## ■ 화소

1. 최문경 부부가 세 개의 옥을 받는 꿈을 꾸고 후 남아 세 쌍둥이를 낳고, 같은 날 같은 시에 유원경은 부처에게 세 개의 구슬을 받는 꿈을 꾸고 후 여아 세 쌍둥이를 얻음.
2. 세 자매가 무예를 익히는 데 열중하자 유원경이 이를 못마땅히 여김.
3. 유원경이 세 자매 중 하나를 죽이려 하자 셋은 남장을 하고 몰래 집을 나감.
4. 우연히 최완 세 형제를 만난 세 자매는 최완 형제들과 의형제를 맺음.
5. 육인이 황하산의 한 도사를 스승으로 삼아 병서와 무예를 익힘.
6. 전쟁이 일어나자 원수를 도와서 육인이 큰 공을 세워 주상에게 작위를 받음.
7. 최완 세 형제가 세 자매가 남장 여자임을 알게 됨.
8. 주상의 의도적인 행위로 세 자매가 자신의 정체를 실토함.
9. 주상의 주선으로 세 자매와 세 형제가 혼인을 하고 세 자매는 가정으로 돌아감.
10. 세 자매가 고향으로 금의환향하고 현모양처로서 편안한 여생을 누림.

## ▣ 줄거리

중국 오대(五代) 시절 절강(浙江) 상림촌(上林村)의 명류(名流) 최문경(崔文慶)은 만년에 우왕(禹王)으로부터 세 개의 보옥(三玉)을 받는 꿈을 꾸고 일시에 세 아들을 얻으니 각각 완(琬)·진(珍)·경(璟)이라 하였다. 한편, 강진촌(康津村)의 유원경(柳元敬)이라는 이 또한 부처로부터 명주(明珠) 세 개를 얻는 꿈을 꾸고서 세 딸을 동시에 얻게 되어 자주(紫珠)·벽주(碧珠)·명주(明珠)라 하였다. 공교롭게 그들 남녀는 같은 시각에 태어났다.

여장부의 기질을 타고난 삼주(三珠)는 답답한 가사일을 못 견디고 남장(男裝)으로 집을 떠나, 한 주점에서 마침 입산수도 길에 있던 최완(崔琬)의 삼형제와 알게 되고, 의형제를 맺는다. 그들 삼옥 삼주의 여섯은 광련산(光連山)의 도사에게 3년간 수학한 뒤, 때마침 일어난 절강의 영웅 조광윤(趙光胤)의 부하에 들어가 북한(北漢)과 맞서 싸우게 된다. 그들은 계책을 꾸며 적장 장림(張林)의 성을 빼앗고, 특히 삼주의 눈부신 활약으로 장림을 사로잡은 후 나머지 적장들을 차례로 벤다.

황제로 등극한 조광윤은 그들의 공로를 치하하는 자리에서 삼주가 여자임을 눈치채고 축하연에서 여섯 사람이 함께 목욕탕에 들어가게 하니, 이에 삼주의 본색이 드러난다. 황제의 중개로 그들은 혼인을 하고 금의환향하여 부모들과도 상봉하였다. 이후 인간사의 행복을 한껏 누리다가 한날 한시에 일생을 마친다.

▣ 본문 감상

< 前六曲 >

<제1수>

일장금 - 거문고.

빛기안고 - 비스듬이 안고 가야금의 곡조인 양춘곡. - 옛 양춘곡(陽春曲). '양춘곡'은 생기발랄한 봄 풍경을 표현하는 곡 타온마리 : 타니. '마리'는 동사의 아래에서 뜻을 강조하는 영탄법으로 쓰임.

맑은 하늘에 달이 밝거늘 거문고를 비스듬히 끼고,

난간에 기대어 앉아 고양춘을 연주하니

엇더타, 입을 향한 시름이 곡조마다 나타나는구나.(밝은 노래인데 슬픔이 묻어난다. 그만큼 화자의 심경이 슬프다.)

⇒ 임금에 대한 그리움

<제3수>

시저리 하 슈상하이 마음을 돌데 업다

교목(喬木)도 네 갖고 세신(世臣)도 가자시되

의론(議論)이 여기저기 하이 그를 몰나 하노라

→ 교목: 국가의 중신

→ 세신: 조정이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 필요한 존재

시절이 심상치 않으니 마음을 돌 곳이 없다.

국가의 중신들도 예전처럼 있고 신하들도 다 갖추어져 있음에도

서로의 분쟁은 여기저기서 끊이질 않으니 그것을 몰라 하노라

하슈상하니 - 심상치 않으니. 喬木도 - 국가의 중신.

世臣 - 대대로 국왕을 섬긴 신하. 자시되 - 갖추었으므로

⇒ 분쟁을 일삼는 조정의 모습에 대한 걱정

송옥(宋玉)이 가을할 만나 므스 이리 슬프던고

한상백로(寒霜白露)는 하늘해 기운이라

이 나의 나문 저 근심은 봄 가을이 업서라

<제6수>

宋玉 - 중국 楚나라 때 굴원의 제자

송옥이 가을을 만나 무슨일이 슬프더냐(송옥이 지은 시, 구변에는 세상의 쇠망과 자신의 불우함을 탄식하고, 가을의 쓸쓸함을 슬퍼하는 구절이 있다. 이를 비추 문학이라고 한다.)

찬서리와 흰이슬(가을-계절적 배경)은 하늘의 기운이라

나의 이 근심은 봄가을이 없다(송옥은 가을에 슬픔을 시로 노래했지만 나의 나라에 대한, 임금에 대한 근심은 봄, 가을이 따로 없다)

⇒ 나라에 대한 근심

< 後六曲 >

<제9수>

공맹(孔孟)의 적통(嫡統)\*이 느려 주자(朱子)께 다다르니

자세한 학문(學文)은 궁리(窮理) 정심(正心) 나란히 일렀네

엇더타 강서(江西) 의론(議論)\*은 그를 지리(支離)타 헛던고

孔孟 - 공자와 맹자. 晦菴 - 주자.

江西議論 - 육구연이 주자를 비판했다는 고사, 강서의론 : 강서학파의 하나인 송(宋) 이학자(理學者) 육구연(陸九淵)이 아호(鵝湖)에서 주희(朱熹)와 만나 논난(論難)이 잦았다는 고사(故事). 육구연은 덕성(德性)을 존중하는 것이 기본 사상이어서 주희의 궁리정심(窮理正心)의 사상을 지리(支離)하다 해 왔음.

支離 - 공자의 學問에서 벗어났다고 비판

공자와 맹자의 학풍이 내려와 주희에게 다다르니

정밀하고 자세히 글을 배움은 마음을 올바르게 깊이 연구함과 함께 일렀도다. (주희의 유교 사상이 훌륭하다.)

엇더타(감탄사), 육구연은 왜 그를 지루하다 했던가. (이 훌륭한 학문을 육구연은 왜 지리하다-갈같이 흠어짐, 공맹의 학풍을 주희가 이어받지 못 하고 갈같이 흠어놓았다고 비판-하는가?)

⇒ 주자학에 대한 예찬

<제11수>

장부(丈夫)의 몸이 되어 기한(飢寒) 두려울까

일산(一山) 풍월(風月)에 즐거움이 ㄱ이 업다

내 마다\* 부운(浮雲) 부귀(富貴)를 따를 줄 이시라

내마다 - 나는 싫다는 뜻, 浮雲富貴 - 부귀영화 .

따올줄리 - 쫓을 줄을

대장부의 몸이 되어 굶주림과 추위를 두려워할 것인가

자연 속에서의 즐거움이 끝이 없구나.

나는 싫다, 덧없는 부귀(부정적 의미, 세속적 가치)를 따를 줄이 있겠는가.

⇒ 자연에 대한 예찬

<제12수>

득군행도(得君行道)는 군자(君子)의 뜻이로되

때를 못 만나며는 고반(考槃)\*을 즐겨 하느니

넉넉한 술바람에 달보기야 나 뿐인가 하노라

훌륭한 임금을 얻는다면(임금이 받아 주면) 나아가 도를 행하는 것이 군자의 뜻이지만,

때가 어긋나면(훌륭한 임금을 얻을 수 없다면) 자연 속에서 풍류를 즐겨하네.

욕심 없는 송풍산월(소박하게 자연속에서 은거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나뿐인가 하노라.

⇒ 자연 속의 삶에 대한 예찬

▣ 핵심 정리

■ 갈래: 연시조

■ 주제: 임에 대한 그리움과 자연 속에서 안분지족하며 살아가는 삶의 자세

▣ 이해와 감상

조선 중기에 장경세(張經世)가 지은 시조. 전체 12수로 된 연시조로, 전6곡(前六曲)과 후6곡(後六曲)으로 되어 있다. <사촌집 沙村集>에 전한다. 창작동기는 사람들이 이 시조를 읊조림으로써 우국충정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데 있다고 하였다.

이는 작자가 언급하듯이 이황의 <도산십이곡 陶山十二曲>을 모방한 것이다. 전6곡의 내용은 임금을 그리고 나라를 근심하는 것으로, 금(琴)을 타는데 곡조마다 임 향한 시름이 나오고, 말이 되어 임금을 그려 울며, 의론(議論)이 분분한데 이를 모르겠고, 꿈에 광한정에 올라 모든 속마음을 토로하며, 가태부(賈太傅)를 비웃고, 근심에는 때가 없다는 것이 각각 여섯 수의 내용이다.

전6곡(前六曲)에서 군왕(君王)에 대한 충성심(忠誠心)과 당시 조정(朝廷)의 당파(黨派) 싸움에 대한 한탄을 토로하고 있다. 남향한 시름 임자 그리워 우노라 꿈가운데 님이 나를 보시고 등은 모두 군왕(君王)을 사모(思慕)하는 충성심(忠誠心)의 뜻이며 時節이 하수상하고 議論이 여기 저기 많으니 當時 事勢 저 근심 등의 문구(文句)는 당시 정쟁(政爭)에 휩싸인 조정(朝廷)의 현실(現實)을 한탄(恨歎)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후6곡은 성현학문(聖賢學問)의 정도로, 공자의 탄식소리가 지금도 들리고, 봄의 경치가 아름다우며, 의론이 지리하고, 강호에서 서성거리며, 자연으로 돌아가 부귀공명을 멀리하고, 군자의 뜻은 송풍산월(松風山月)이라는 것이 각각 여섯 수의 내용이다. 연시조와 선행한 시조형태를 모방한 것이 이 작품의 특징이다.

#### ■ 이해와 감상

조선 선조 때 사촌(沙村) 장경세(張經世)가 지은 12수의 연시조(聯時調). 지은이가 어렸을 때 친구 이평숙(李平叔)에게서 퇴계(退溪) 이황(李滉)의 《도산십이곡(陶山十二曲)》을 얻어 그 뜻이 참되고 음조가 청순하므로 베껴 두고 시시로 음영(吟詠)하였는데, 후일 이를 모방하여 자신도 이 노래를 지었다 한다. 전후 6곡씩, 모두 12수로 되어 있다. 전 6곡은 시골에서 임금을 그리워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정을, 후 6곡은 학문과 선현(先賢)을 사모하는 정을 노래했는데, 12곡이라는 것을 본뜨기는 했으나 내용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 <요공(瑤空)에 거 일장금(一張琴)을 빗기 안고/난간을 디혀 안자 고양춘(古陽春)을 온 마리/엇더타 님 향 시이 곡조마다 나니>로 시작되며, 지은이의 문집 《사촌집(沙村集)》에 전한다.

조선 중기에 지은 12수로 된 연시조이다. 창작 동기는 사람들이 이 시조를 율음으로써 우국충정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데 있다고 전한다. 이황의 <도산십이곡(陶山十二曲)>을 모방한 것으로, 전 6곡(前六曲)은 임금을 그리고 나라를 근심하는 내용으로, 후 6곡(後六曲)은 성현학문(聖賢學問)의 정도(正道)를 편 내용으로 되어 있다.

선조가 죽은 후 광해군 옹립에 성공한 정치 세력은 영창 대군을 옹립하려 했던 사람들을 축출하기 위해 전횡을 일삼았다. 이로 인해 조정의 의논은 분분했고 정국의 혼란은 피할 수 없었다. 이 작품은 이러한 정국의 흐름 속에서 권력의 중심에서 점차 소외된 사람들의 상실감을 반영한 노래이다.

▣ 본문 감상

이 시의 주제는 간단하다. 밤은 생명의 시간이다. 밤이 지나야 낮에 새싹이 돋아나고 열매가 열린다. 밤에 충분히 잠을 자야 만물은 낮에 왕성한 생명력을 발산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밤은 생명을 품은 시간이다. 이러한 역설적 발상이 형상화된 시이다.

무르익은

과실의 밀도(密度)와 같이

밤의 내부는 달도록 고요하다. [밤을 과실에 비유해 생명력을 품은 공간으로-시간을 공간으로 변용- 표현하고 있다.]      공감각, 관능적 이미지

잠든 내 어린것들의 숨소리는

이미지의 변용 감각적

작은 벌레와 같이 [꼬물거리는 생명력]

이 고요 속에 파묻히고,

생명의 시간

별들은 나와 [자연의 구조, 섭리(밤이 지나야 생명이 나온다는)를 깨달음]

자연(自然)의 구조에

밤의 생명력

질서있게 못을 박는다.

한 시대 안에는 밤과 같이 해체(解體)나 분석(分析)에는

낮의 특징 1 - 낮에는 눈에 보이는 대로 사람들이 대상을 분석하고, 그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대상의 본질을 해체한다.

차라리 무디고 어두운 시인들이 산다.

그리하여 토의의 시간이 끝나는 곳에서

낮의 특징

밤은 상상으로 저들의 나래를 이끌며 준다. [낮과 밤의 대조]

밤의 특징      날개

- 이성이 지배하는 낮과 달리 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없기 때문에 상상과 직관이 지배하는 시간이다. 이 상상과 직관이 생명을 탄생시킨다.

꽃들은 떨어져 열매 속에

그 화려한 자태를 감추듯……

그리하여 시간으로 하여금

새벽을 향하여

이 풍성한 밤의 껍질을

서서히 탈피게 할 줄을 안다.

재생과 창조의 시간

## ▣ 핵심 정리

- 성격 : 주지적, 감각적
- 특징
  - 사상 전달을 배제하고 이미지 전달을 중시함
- 제재 : 밤의 생명력
- 주제
  - 밤이 지닌 생명의 힘

가변적인 세계 : 웃음 - 화려한 형상이나 일시적 - 꽃 - 낮의 시간 - 일상성  
 불변적인 세계 : 눈물 - 사라짐을 통해 거듭남 - 열매 - 밤의 시간 - 직관

## ■ 이해와 감상

그의 시는 가변적인 세계 속의 일상의 존재성을 벗어나 재생과 창조로 승화되는 불변적인 세계로의 지향을 드러내고 있다. 김현승 시에 나타나는 모순과 대립은 생명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방식으로 역설적인 진리로 통합되면서 무화되고, 더 높은 가치체계로 승화된다. 이것은 확대하면 가시적이고 가변적인 삶에 대한 항구적이며 불변적인 가치와 삶의 훌륭한 상징이 되는 것이다.

여기에는 사물의 본질을 파악하여 표현하려는 정신의 매서움 외에도 심화된 생명의 순결성과 가시적인 세계를 넘어 서려는 시인의 기독 사유적인 흔적이 여실히 드러난다. 즉 재생과 창조 사상에 드러나는 생명성의 시화가 모순과 통합이라는 방식으로 승화된 것이다. 그의 역설적 사고가 궁극적 가치를 얻는 것은 이 지점에서이다.

## ▣ 이해와 감상

이 글에서 글쓴이는 산나물에 얽힌 아름답고 낭만적인 유년 시절의 경험을 떠올린 후 지난날의 순수를 잃어버린 현실을 되돌아보고 있으며 ‘산나물같이 순수한’ 사람을 만날 수는 없는지 되묻는다.

글쓴이는 자신의 실제 옛이야기를 소개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이끌어 감으로써 독자의 공감을 확보하고 있으며 과거와 현재의 대비를 통해 주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 ▣ 핵심 정리

■ 갈래: 수필

■ 성격: 자아성찰적

■ 특징

- 자신의 실제 옛이야기를 소개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이끌어 감으로써 독자의 공감을 확보
- 과거와 현재의 대비를 통해 주제의식 표출

■ 제재: 산나물

■ 주제: 순수한 삶에 대한 지향

## ★ 산나물의 기능

-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유발
- 친구들과의 추억을 회상
- 유년시절에 대한 동경을 유발
- 봄을 맞은 화자의 심경을 되돌아보게 함

## ★ 추억을 환기하는 소재

성장 과정의 환경은 그 사람의 생애를 지배한다. 잊을 수 없는 유년 시절의 체험 속 풍물들을 환기시켜 놓은 것이 노천명 문학의 고향의식이다.

글쓴이는 장거리를 지나면서 산나물을 보게 되는데 이 산나물을 본 것이 마치 고향 사람이라도 본 양 반가워 고향을 생각하고 어린 시절의 추억을 떠올린다. 어린 시절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자신을 걱정해 주는 동무들과 행복한 마음으로 산에 나물을 뜯으러 갔으나, 삼십여 년이 지난 지금은 봄이 왔건만 마음은 아직 얼음이 녹지 않아 을씨년스러움이 느껴진다. 이는 자신이 세상의 때에 절어 살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기에 느끼는 감정으로 글쓴이는 산나물 같은 사람을 그리워하며 순수한 삶을 지향하고 있다.

## ▣ 본문 감상

먼지가 많은 큰 길을 피해 골목으로 든다는 것이 걷다 보니 부평동(富平洞) 장거리로 들어섰다.

유달리 끈기 있게 달려드는 여기 장사꾼(아주마시)들이 으레, 또 “콩나물 좀 사 보이소 예, 아주머니요, 깨소금 좀 팔아 주이소” 하고 잡아다닐 것이 뻔한지라 나는 장사꾼들을 피해 빨리빨리 달아나듯이 걷고 있었다.

그러나 내 눈은 역시 길가에 널려 있는 물건들을 놓치지 않고 보고 있었다. 한 군데에 이르자 내 눈이 어떤 아주머니 보자기 위에 가 붙어서 떨어지지 않았다.

그 보자기에는 산나물이 쌓여 있었다. 순진한 시골 처녀 모양의 산나물이 콩나물이며 두부, 시금치 들 틈에서 수줍은 듯이 그러나 싱싱하게 쌓여 있는 것이었다.

얼른 엄방지고(건방지고의 잘못) 먹음직스러운 접중화(접시꽃)가 눈에 들어온다. 그 밖에 여러 가지 산나물들도 낮이 익다.

고향 사람을 만날 때처럼 반갑다. 원추리며 접종화는 산소의 언저리에 많이 나는 법이겠다. 봄이 되면 할미꽃이 제일 먼저 피는데 이것도 또한 웬일인지 무덤들 옆에서 많이 핀다.

#### ⇒ 장거리에서 산나물을 봄

바구니를 가지고 산으로 나물을 뜯으러 가던 그 시절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그 당시에는 느끼지 못했던 일이다. 예쁜이, 섭섭이, 확실이, 넷째는 모두 다 내 나물 동무들이었다.

활나물, 고사리 같은 것은 깊은 산으로 들어가야만 꺾을 수가 있다. 뱀이 무섭다고 하는 나한테 섭섭이는 부지런히 칩순을 꺾어서 내 머리에다 갈아 꽃아주며, 이것을 꺾고 다니면 뱀이 못 달려든다는 것이었다.

산나물을 캐러 가서는 산나물만을 찾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이 산 저 산으로 뛰어다니며 뼈꼭채를 꺾고 싱아를 캐고 심지어는 칩뿌리도 캐는 것이었다. 칩뿌리를 캐서 그 자리에서 먹는 맛이란 또 대단한 것이다. 그러나 꺾이 푸드덕 날면 깜짝들 놀라곤 하는 것이었다.

내가 산나물을 뜯던 그 그리운 고향엔 언제나 가게 될 것인지?

#### ⇒ 산나물을 캐러 다니던 유년 시절의 기억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

고향을 떠난 지 30년. 나는 늘 내 기억에 남은 고향이 그리고 오늘처럼 이런 산나물을 대하는 날은 고향 냄새가 물큰 내 마음을 찢러 어쩔 수 없이 만들어 놓는다.

산나물이 이렇게 날 양이면 봄은 벌써 제법 무르익었다. 냉이니 소루쟁이니 달래는 그리고 보면 한물 꺾인 때다.

산나물을 보는 순간 나는 그것을 사고 싶어 나물을 가진 아주머니 앞으로 와락 다가서다가 그만 또 슬며시 뒤로 물러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생각을 해 보니 산나물을 맛있는 고추장에다 참기름을 쳐 무쳐야만, 그래서 거기다 밥을 비벼서 먹어야만 맛이 있는 것인데 내 집에는 고추장이 없다. 그야 아는 친구 집에서 한 보시기쯤 얻어올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고추장을 얻어서 나물을 무쳐서야 그게 무슨 맛이 나랴. 나는 역시 싱겁게 물러서는 수밖에 없었다.

#### ⇒ 고향 생각에 산나물을 사려다 고추장이 없어 사지 못함

진달래도 아직 꺾어보지 못한 채 봄은 완전히 왔는데 내 마음 속 골짜구니에는 아직도 얼음이 안 녹았다. 그래서 내 심경은 여태껏 좁고 방 안에서 밖엘 나가고 싶지가 않은 상태에서 모두가 을씨년스럽다.

시골 두메 촌에서 어머니를 따라 달구지를 타고 이삿짐을 실리고 서울로 올라오던 그때부터 나는 이미 에덴동산에서 내쫓긴 것이다. 그리고 칩순을 머리에다 안 꺾고 다닌 탓인가, 뱀은 내게 달려들어 슬한 나쁜 지혜를 넣어주었다.

#### ⇒ 고향을 떠난 이후의 생활

10여 년 전 같으면 고사포(高射砲)를 들이댔을 미운 사람을 보고도 이제는 곧잘 웃고 혼연스럽게 대해 줄 때가 있어, 내가 그 순간을 지내놓고는 아찔해지거니와 풍우난설(風雨亂雪)의 세월과 함께 내게도 꽤 때가 앉았다.

심산(深山) 속에서 아무 거리낌없이, 자연의 품에서 퍼질 대로 퍼지다 자랄 대로 자란 싱싱하고 향기로운 이 산나물 같은 맛이 사람에게도 있는 법이건만 좀체 순수한 이 산나물 같은 사람을 만나기란 요즈음 세상엔 힘드는 노릇 같다. 산나물 같은 사람은 어디 없을까? 모두가 역세고 꾸부러지고 벌레가 먹고 어떤 자는 가시까지 돋혀 있다. 어디 산나물 같은 사람은 없을까? — 1953.3.25. 부산 피난지에서

#### ⇒ 순수한 산나물 같은 사람을 만나고 싶음

▣ 본문 감상

마음 후줄근히 시름에 젖는 날은

동물원으로 간다.

※ 1연: 동물원(시름과 슬픔을 위로 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설정)

4연 : 無人한 동물원(더욱 강한 현실 인식을 통해 비극성이 심화된 공간)

사람으로 더불어 말할 수 없는 슬픔을

짐승에게라도 하소해야지.

→ 화자의 절박한 상황을 심화

⇒ 시름과 슬픔을 달래기 위해 찾아가는 동물원

난 너를 구경 오진 않았다

※ 상황대비(다른 사람: 동물원 구경↔화자: 위로받기위한 공간)

뺨을 부비며 울고 싶은 마음.

<혼자서 숨어 앉아 시(詩)를 써도

읽어 줄 사람이 있어야지>

→ 시를 창작, 감상의 자유가 박탈당한 비극적 현실

쇠창살 앞을 걸어가며

정성스레 써서 모은 시집을 읽는다.

⇒ 문학 창작과 감상의 자유조차 박탈당한 암담한 현실

철책 안에 갇힌 것은 나였다

→ 위로받기 위한 동물원의 공간이 자신의 암담한 처지를 더욱 강하게 확인하는 공간으로 인식하면서 ‘나라 없는 시인’임을 확인하게 됨

<문득 돌아다보면

사방에서 창살 틈으로

이방(異邦)의 짐승들이 들여다본다.

“여기 나라 없는 시인이 있다”고

속삭이는 소리……>

→ 주객전도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의식을 동물들이 대변함

⇒ 나라 잃은 시인을 들여다 보는 동물원 짐승들

무인(無人)한 동물원의 오후 전도된 위치에

→ 공간적 배경과 시간적 배경(아무도 오지 않은 동물원의 오후)이 화자의 정서와 조응: 식민지 지식인의 고독과 비애

통곡과도 같은 낙조(落照)가 물들고 있었다.

→ 자연적 배경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표현

⇒ 낙조에 물들어 통곡하고 싶은 동물원의 오후

## ▣ 핵심 정리

### ■ 주제

- 망국민의 비애
- 식민지 지식인(시인)의 고독과 비애

## ▣ 이해와 감상

이 시의 제목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 정보를 짐작할 수 있다. 화자가 처한 시적 공간(공간적 배경)은 ‘동물원’이며, 시적 시간(시간적 배경)은 ‘오후’라는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동물원’은 가족 또는 친구, 연인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 찾는 공간이지만, 이시의 화자에게 ‘동물원’은 나라 없는 시인으로서 화자가 홀로 찾아가 고독과 슬픔과 분노를 삭이는 공간이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오후’라는 시간은 ‘오전’이라는 시간과 대비되는 시간으로서, 오전의 밝고 힘찬 이미지와는 상반되는 어둡고 무기력한 이미지를 연상시킨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이 시의 화자는 망국민이자 지식인(시인)으로서 낙조에 가까운 황혼 무렵의 오후 시간을 택해 아무도 찾지 않는 동물원에서 고독과 슬픔과 분노를 달래고 있다. 동물원을 찾은 화자가 마치 자신이 쇠창살에 갇힌 동물인 양 느끼면서 자유를 잃은 식민지 현실에 슬퍼하고 통곡하고 있다. 가객의 삶을 유추할 수 있는 여러 악기의 소리를 연상시키면서 화자는 언젠가는 지상을 떠나갈 유한적 존재인 인간의 삶과 허무를 유장하게 노래하고 있다.